

#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급물살 탈 듯

### 서진측 “광주 발전 위한 대응적 차원 대법원 상고 의사 철회” 신세계프라퍼티 오늘 사업계획서 제출 예고...롯데도 관심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광주시와 소송에 나섰던 서진건설그룹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어등산 내 복합쇼핑몰 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진건설 김환진 대표이사는 27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 광주 발전을 위해 또다시 소모적인 재판을 이어가기보다는 대응적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어등산 개발이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고, 광주시민의 상실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민선 8기 광주시의 요구를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수도 서진건설측의 대응적 결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펼쩍 도시’ 광주를 위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단과 차담회에서 “광주공동체를 위한 서진건설의 대응적 결단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15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신세계프라퍼티측에서도 28일 어등

산 관광단지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만큼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광주시는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제3자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단수 또는 복수의 공모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꼼꼼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통업계에선 이번 서진건설의 상고 의사 철회에 따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놓고 신세계와 롯데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개발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미 지난 8월 기자회견을 통해 8000억원을 투입해 어등산 관광단지 내에 가칭 ‘스타필드 광주’를 조성 투자 계획을 공식화한 상태다. 롯데 측은 우지공원과 어등산 관광단지 등을 대상으로 놀이공원 롯데월드 등을 앞세운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일단 현재로서는 신세계프라퍼티의 개발 의지가 돋보인다. 신세계프라퍼티측은 광주 현지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외국인, 기관 등 대규모 자본을 유치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스타필드 광주는 워터파크와 썬빌방, 영화관, 체험형 놀이시설 등을 갖춘 ‘체류형 복합쇼핑몰’을 표방하고 있으며, 30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할 예정이다. 또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함께 들일 구상까지도 드러내고 있다. 고용 유발 효과만 3만명으로 추정되고 목포, 무안 등 서남권은 물론 다른 시·도 고객을 끌어들이 연 1500만명이 방문하는 호남 관광거점으로 거듭나겠다는 게 신세계측의 목표다.

광주 복합쇼핑몰 점포 형태 중 하나인 ‘스타필드 광주’가 건립되면 경기 하남·서울 코엑스·고양·안성·수원(2023년 말), 창원(2024년 말)에 이어 호남권 첫 스타필드가 탄생하게 된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과 상관 없이 제안서 준비 등 사업계획을 성실히 추진해 왔다”면서 “일단 복합쇼핑몰 사업 계획서(제안서)를 제출하고, 광주에서 제3자 공모를 하면 곧바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 부지 등 41만7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돈되는 골프장’만 짓고 나머지 관광시설 개발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北 무인기 사태에 파주 안보관광 중단 2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관광객들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으로 운영이 잠정 중단된 곤돌라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파주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군이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

## 고흥에 전국 최초 어선건조지원센터 설립

### 전남도, 조선소·검사소·연구소 집적화...국내외 시장 선점 기대

전국 최초로 고흥 도양읍 일원에 어선의 건조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터가 들어선다. 센터 내에는 조선소, 검사소, 연구소 등이 들어서 어선건조 산업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어선건조지원센터는 산재한 소규모 어선 조선소, 검사소, 연구소 등을 집적시켜 친환경·고효율 어선 건조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국내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어선건조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데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국비 400억원 포함 490억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고흥 도양읍 일원에 어선 건조 진수를 위한 몰드 제작시설, 트레일러, 크레

인 등을 갖춘 예정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으로 어선건조 기술지원을 통해 품질관리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어선 건조 기반을 마련해 내수 및 동남아 어선 건조 시장을 선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어선 조선소 200여 개 중 114개소가 운영 중인 전남에 어선건조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집적화를 통한 소형어선 조선산업 육성에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또 어선 검사 이동거리 단축과 불법증개축 등 사회적 문제 해소, 연간 3000억원의 생산유발과 6000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본격화...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전남대병원 신축사업·여수 국동항 건설 등 예타 선정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남대병원 신축 사업과 국내 최대 어항인 여수 국동항 건설공사, 나주 밀 전용 비축시설 조성사업도 새롭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 일곡동 일대에 추진중인 광주구치소 신축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 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완도에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은 또 전남대병원을 미래형 뉴스마트병원으로 신축하는 사업과 국내 최대 어항인 여수 국동항 건설공사를 신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던 광주구치소 신축사업도 사업 규모를 조정,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총 1475억원을 들여 완도에 난·아열대 식물 연구·시험, 전시·관람, 교육 관련 시설 등을 갖춘 난대지역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미 내년 수목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

한 설계 용역비로 국비 6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실시계획(2024~2025)을 거쳐 2026년 착공, 2030년 완공해 2031년 개원이 전남도와 산림청 목표다.

정부는 한반도 생태축을 따라 국립광릉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세만금수목원,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이어지는 기후·식생대별 수목원을 확충, 국가식물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신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사업은 오래되고 비좁은 전남대병원을 단계적으로 철거한 뒤 병원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오는 2034년까지 1조 2146억원을 투입해 조성하겠다

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간호대)를 화산·용봉캠퍼스로 이전하고 해당부지에 동관을 신축하는 1단계 사업 이후 2단계로 병원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서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남대병원 신축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형 첨단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광주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당 모두 많은 도움을 준 끝에 역사적인 새병원 건립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꼭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최고의 병원을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경매입찰, 강추** 도초설 내 입야, 1월 9일 입찰  
낙찰시 100억 가치 있음

**단독, 공동입찰 하실 분. 오천경매.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급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1길 12-8)

**대 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 물** 1)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채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장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상환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토지 급매**

**광주광역시 남구 입암동 692(호천 1지구)**  
대지 683.4㎡ (207평)

- 근린생활시설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2면 도로접(중로1류, 소로2류)
- 5층 건물 신축 가능(대형식당, 스크린 골프장, 커피숍 등 다양한 상가와 1주택 건축 가능)

**매매가 : 18억 4천만원**

**010-3605-8564**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재민공고)

강호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갑”)와 삼영전력 주식회사(이하 “을”)는 2022년 12월 27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소방시설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의거하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갑”과 “을”의 해당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8일  
“갑” 강호정보통신 주식회사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 101호 대표이사 이성숙  
“을” 삼영전력 주식회사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탄금대로 753-22(중앙탑면) 대표이사 이춘희

**고졸 조대부고 총동창회**  
“2023 신년음악회”

- 일시 : 2023. 1. 5(목) 18:00
- 장소 : 조선대학교 대조전기홀
- 전화 : 062-224-1461
- 대상 : 전 동문 가족동반
- 떡국, 다과, 주차권 제공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김 광 태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